

94.6.29
폭행시달리다 남편 살해

이순심씨 징역 4년 선고

23년 동안 남편의 학대와 폭행에 시달리다 술취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이 구형된 가정주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용주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9시30분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열린 이순심(39·안양시 동안구 신촌동 무궁화건영아파트)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수원/홍용덕 기자